

#### 4 약속(언약)과 율법(계명)

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 이십니다." (갈 3:15-16)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언약)'과 '율법(계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언장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몇 백 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먼저입니까? 수 백 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언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언을 거저 주셨습니다." (갈 3:17-18)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자명합니다. 서로 상충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무엇을 준 것과, '그가 내가 원하는 바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준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 요구 조건을 들어줬기 때문에 무엇을 줬다고 하면, 결코 그것은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약속과 율법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약속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는 오직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주어진 복입니다. 하지만 계명에 의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복종입니다. 조건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 5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 사랑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군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먼저 짐승을 가져와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갬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관습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맺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후에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지키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계약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과 연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과 연기가 그 사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주어집니다. 계약이 깨어지면 하나님만이 그 계약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창 15:7-21)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죽음으로까지 지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최진영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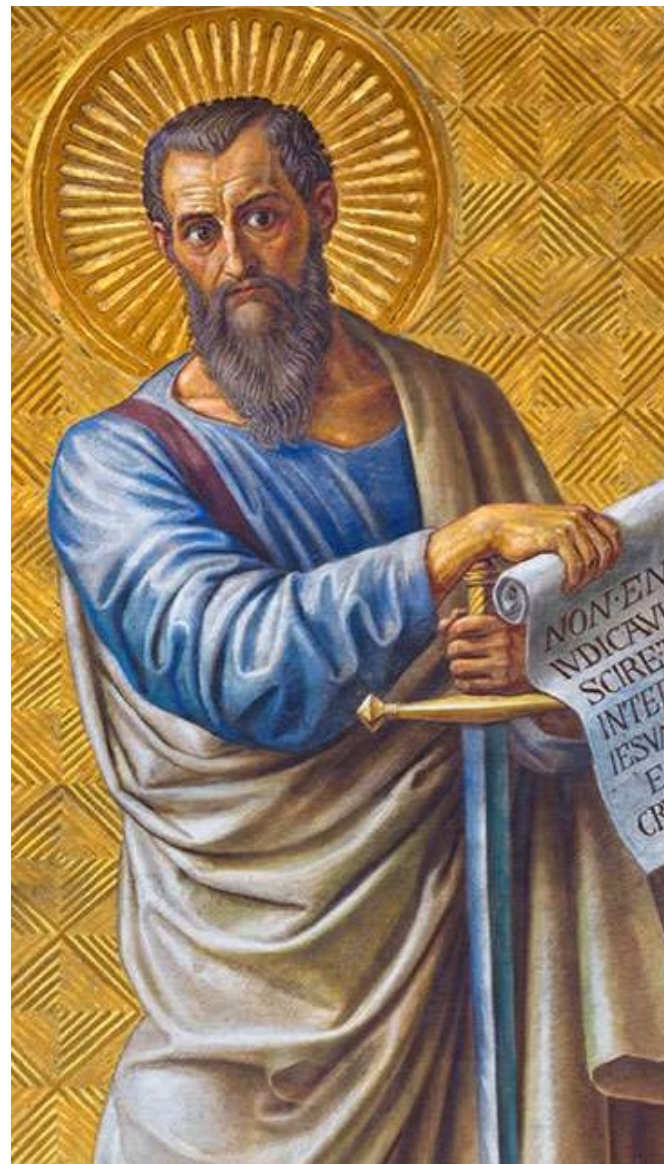
[www.weppc.net](http://www.weppc.net) 홈페이지에서도 읽으 보실 수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강해(9)

Galatians 3:10-18

지난주 수요성경강해 2022년 8월 31일 (수)

파사데나장로교회



## 1 율법의 저주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난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왜 '저주'라는 것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613개 조항의 율법에 있어서 일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인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율법에 맞게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따지고, 나를 쳐서 복중시키고, 그렇게 나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볼 때도 끊임없는 열등감과 불안 가운데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나 자신의 양심의 잣대 사이에서도 고민하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도 나는 저주 아래에 놓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시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 2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21: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시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죽임 당한 것을 넘어서서, 신에게 버림 받은, 하나님에게 버림 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누군가 나무에 달렸다면 그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렸다고 보다는,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연결 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는 단순한 죽음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 즉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았습시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와 성경과 복은 우리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치 죄인인 것처럼 여김을 받았습시다.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죄의 댓가를 그 분이 대신 물어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 분이 '죄' 자체가 되시고 '죄인'자체가 되었다는 말은 그분이 그렇게 그냥 억울하게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분이 '우리'대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대신 '죄'의 값을 치루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그 분은 저주아래 놓이셨고,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속량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고 흠결이 없는 완벽한 존재처럼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 3 아브라함의 씨

그령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경을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경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 3:14)

인간이 유언장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장이 한 번 작성되면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무효로 하거나 다른 조항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언장과 같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의 '씨'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네 자손(씨)라는 것이 복수형, 즉 네 자손들(씨들)이 아니라, 단수형 자손(씨)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